

▲ 코스피지수 1,368.80 (+12.78) ▲ 코스닥지수 514.09 (+4.19) ▼ 금리 (국고채 3년) 3.70% (-0.02) ▼ 원·달러 환율 1,348.00원 (-0.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② 보해양조 '매취순'



<5년 숙성 매취순> <매취순 백자 12년산>

“스바라이시, 스고이! (대단하다, 최고다!)”

지난 18~19일 광주에서 열려진 ‘2009 한일 여자배구 V리그 텁 매치’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하마다 요시히로 ‘히사미츠 스프링스팀’ 감독과 우치야마 아끼라 ‘도레이 애로우즈’팀 구단주 등은 선물로 제공된 ‘매취순 백자 12년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치야마 아끼라 구단주는 “일본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명품주다”고 엄지를 치켜세웠고, 요시히로 히사미츠 감독은 일본어로 된 설명서를 보

고 “맛과 향취뿐 아니라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웰빙술이다”고 칭찬했다. 요시히로 감독은 특히 모기업 회장과 회식 때 쓰겠다며 소중하게 가져갔다는 후문이다.

향토기업 보해양조가 생산한 ‘매취순’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피로회복과 노화방지가 타월한 천연 매실을 원료로 쓴 효과다. 매실

1981년 ‘매취’란 상표로 첫 시판을 하면서 88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 외국귀빈들에게 공식선물로 채택되는 등 명성을 얻었지만 판매량이 향상되지 않는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보해는 여기서 굽하지 않고 알코올도수를 25%에서 14%로 낮추고 숙성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매취순’을 내놓았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89년 90만병

택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실주가 됐다.

해외에서도 2004년 세계적 와인경진대회 ‘AWS Wine Competition’에서 과실 포도주 동메달을 따낸 후 유수의 와인 전문가와 바이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세계 와인박람회 ‘Vinexpo 2007’에서 현지 와인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프랑스 유명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공급하고 있는 데스프라 렌(Desprat Vins) 사의 빼에르 데스쁘라(Pierre Desprat) 사장이 매취순의 이색적인 맛이 프랑스에서 통할 것이다며 구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보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1월 국내최초로 12년산 매실주를 출시해 ‘VIP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백자에 아름다운 매화문양을 삽입해 동양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매취순 백자 12년 산’은 제품 가치 및 소장가치가 높아 외국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보해양조 윤운식 영업본부장은 “지역민들이 만든 보해 매취순과 복분자를 세계인 모두가 인정하는 명품 웰빙 와인으로 기우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온 日 배구팀 감독도 극찬 세계 名酒

피로회복·노화방지 탁월 ‘웰빙술’ 급부상

특유의 상큼함에 약효까지 더해진 덕분에 웰빙주로 인식돼 일본은 물론 미국, 호주, 프랑스, 중국 등으로 판매망을 넓리고 있다.

‘웰빙 명주’ 매취순에는 작고한 보해양조 임광행 회장의 장인정신이 스며있다. 평소 세계 유명주와 견줄만한 술을 개발하겠다고 다짐해온 임 회장은 매실을 솔로 빚어내기 위해 1977년 연구에 착수한 후 79년 해남군 산이면에 14만평의 매실농장을 조성해 안정적 원료 매실을 확보했다.

이 팔리던 것이 이듬해엔 3배 많은 255만병이나 나갔다. 상품이 팔려 5년 숙성을 과기하더라도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빨발질 정도였다.

보해는 하지만 ‘5년 숙성’의 원칙을 지켰다. 덕분에 4년 연속 ‘여성 소비자가 뽑은 명품대상’, ‘한국 소비자 웰빙지수 과실주 부문 1위’(2006년) 등을 차지했다. 6·15 민족통일대축전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공식 만찬주(2008년), OECD 장관회의 공식 만찬주(2008년)로 채



지난해 여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8 대한민국 주류박람회’에 참가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매취순 시음 행사를 펼쳐 방문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보해양조 제공>

광주상의 회장 내달 뽑는다

5월 7일 보궐선거…박홍석씨 추대 가능성

이승기 전 회장의 사퇴에 따른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보궐선거가 오는 5월 7일 치러진다. 상의는 이번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선 없이 회장을 추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상의는 23일 “5명의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회장단 회의에서 회장 보궐선거를 다음달 7일 오후 5시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를 위해 신임 회장을 뽑을 때까지 상의를 이끌 회장 직무 대행으로 유희열 세화기계(주) 대표를 선출했다. 상의 회장 선출은 선거권을 가진 상공의원 67명이 일원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직접 투표하거나, 추대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회장 후보자 등록은 23일부터 5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광주상의 부회장단은 이날 회의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시기

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경선보다는 상공회의소의 회합과 발전을 위해 더 망 있고 유능한 분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비경선·추대 원칙’이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대 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했다가 상의 회합과 발전을 위해 경선 직전에 사퇴한 박홍석 력기산업 회장이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상공계는 박회장이 현재 상의 부회장을 맡고 있어 이승기 전 회장 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보궐 선거는 지난 3월 20일 회장으로 추대됐던 이승기 회장이 자신이 경영해온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 등이 부도 처리돼 회장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10일 회장직을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4조원대 펀드 조성

선박 100여척 매입

공공과 민간, 금융권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해운업체의 선박 100여척을 매입한다. 건조가 진행중인 선박에 대해 총 4조7천억원의 대출이 가능한 것까지 고려하면 총 8조7천억원 가량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에 해운업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유화 흑자 전환

1분기 1535억 영업이익

호남석유화학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호남석유화학은 23일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153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1조2336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1595억원으로, 역시 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호남석유화학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글리콜 등 주요 제품가격이 상승해 마진이 개선됐다’며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다”고 밝혔다.

>여수=백양석유화학 기자 ykpark@



세탁기 만드는 대우일렉 사장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이성 사장과 각 사업본부장, 노조지부장 등 주요 임직원들이 지난 22일 광주공장을 방문해 일선 현장체험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장은 2시간 동안 드럼세탁기 캐비넷 투입 공정(외관 조립) 과정에 참여해 부품 조립과 수평 맞춤 작업을 진행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제공

LED업체 가이드 교육

한국광기술원은 28일 기술원 본부 동 2회의실에서 LED 조명제품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LED 조명제품에 대한 규격 가이드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UL 코리아측 담당자들이 강사로 나서 미국·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국제 규격 인증(EMC·UL·CE)을 소개하고 관련 절차·기준·준비사항 등을 설명한다. 문의 062-605-9136

>김재율기자 dok2000@kwangju.co.kr

